



이창호

'돌부처' 이창호 - '센돌' 이세돌

# '왕중왕' 대결

## 바둑팬 설렌다

### ■ 이창호 vs 이세돌 타이틀 매치 전적

날짜	대회	승자	결과
2001년 2월	LG배 결승	이창호	3대2
2001년 10월	바둑왕전 결승	이창호	2대0
2002년 7월	왕위전 도전기	이창호	3대2
2003년 2월	LG배 결승	이세돌	3대1
2004년 7월	왕위전 도전기	이창호	3대2
2009년 2월	바둑왕전 결승	이창호	2대1
2010년 8월	하이원배 결승	이창호	1대0

### 물가정보배 결승 2국 15일 '빅뱅'



이세돌

### ◎ 이세돌

#### 올해 46승 19패 승률 1위

#### 1국 승리 ... 육일승천 기세

#### "내친김에 2 대 0 끝내겠다"



지난 1일 열린 1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280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lt;한국기원 제공&gt;

한국바둑의 양대 파워, '돌부처' 이창호와 '센돌' 이세돌의 승부가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올들어 하이원리조트에서 이창호가 먼저 1승을 쟁겼고, 지난 1일 물가정보배 결승 3번기 제1국에선 이세돌이 이겼다.

결승 2국은 15일. 센돌은 여세를 몰아 우승을 확정지으려 하고, 돌부처는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말한다. 한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반상의 두 영웅이 격돌하는 세기의 대결에 바둑팬들이 흥분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세계기전도 아니고 우승상금도 3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국내기전이지만, 전세계 바둑팬들의 시선이 한곳에 모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둘의 대결은 바둑팬이라면 누구라도 기대되었던 빅 매치라는 점이다.

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이창호.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국바둑의 1인자로 떠오르며 세계정상에 오른 이세돌. 둘의 대결은 바둑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최고의 이벤트다. 하지만 그 동안 두 영웅이 결승무대에서 만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흔히 미세한 우세로 허려가던 바둑은 종양 백을 차단하는 끝우는 묵수를 자렬시킨

### ◎ 이창호

#### 역대 전적 31승 22패 우위

#### 최근 7차례 결승서 6승1패

#### 이번 대회가 전관제패 기회

저 웃었다.이세돌 9단은 지난 1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기 한국물가정보배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이창호 9단을 맞아 백으로 280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18개월만의 승리다.

현역 최고수들의 대결답게 치열한 전투와 절묘한 타협이 이어진 접전이었다.

이창호는 초반부터 밤 빠르게 실리를 차지해갔고 이세돌은 특유의 불 같은 성질(?)을 꾹꾹 눌러가며 기회를 염았다. 반상에 놓인 바둑돌로만 본다면 서로 기풍이 뒤바뀐 듯한 흐름이 중반까지 이어졌다.

대국 후 이세돌은 "끝내기 단계에서 반집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변에서 이득을 봄지 남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평했다.

이어 "이창호 9단이 기풍이 예전보다 치

열해진 것 같아 이기기 더 어려운 것 같다.

첫 판을 이겼으나 5 대 5 승부라고 본다. 최종국까지 가면 지기 때문에 2-0으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생중계를 한 목진석 9단은 "마치 새로운 돌부처가 탄생한 것 같다"며 이세돌의 차분한 국면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엔 누가 웃을까= 이세돌은 이날 승리로 이창호와의 통산전적을 22승 31패로 좁혔다. 올해 승률도 이창호를 크게 앞선다.

이 대회 전까지 이창호가 올해 34승 19패 (64%)인 반면, 이세돌이 46승 7패(87%) 승률 1위를 달렸다. 육일승천하는 기세가 무섭다.

그렇다고 이창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 돌사이는 최근 전적이나 기세만으로 점칠 수 없는 복잡미묘함이 있다. 사실 바둑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돌부처'의 시대는 가고 '센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정상급 기사들은 더는 이창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창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세돌이다. 역대 전적도 이창호가 여전히 윌등히 앞서 있다. 최근 6차례 만난 결승전에서

는 이창호 9단이 5승1패로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3월 끝난 27기 바둑왕전에서도 이창호가 승리했고, 지난달 19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이창호가 이긴 바 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이창호 9단은 8승 2패를, 이세돌 9단은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멋비슷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여기 물가정보배가 속기라는 점도 작용할 수 있다. 제한시간 각 10분 초읽기 40초라는 특성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도 승부로 직결될 수 있으며, 초읽기 상황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둑계에서는 보고 있다.

두 기사 각자에게 이번 타이틀을 매치는 종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거의 모든 기전을 한 번 이상 우승했으면서도 오직 물가정보배만은 손에 넣어보지 못한 이창호에게는 전관제패를 달성할 기회가 된다. 이세돌에게는 '이창호에겐 안 되는 1인자'라는 오명을 씻는 전환점 마련의 잔스다.

결승 2국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바둑TV에서 8시부터 생중계한다. 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산행안내

9월 5일(화)

▲ 광주한솔시민의회 충남 팔봉산(길)도립공원 9월5일(일) 6시30분 양주체육관 후문 7시 대국장 출발(7:00 광주역광장, 7:3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솔시민의회

▲ 전남도립공원 충북 공연장 9월5일(일) 7시 광주역출발(6시10분 양주체육관 후문 7시10분 예술관문) 경유) ■다음카페: 전남도립공원

▲ 광주한솔시민의회 협찬 가수단 9시15분 예술관문(경유) ■다음카페: 광주한솔시민의회

▲ 광주한솔시민의회 협찬 가수단 9시15분 예술관문(경유) ■다음카페: 광주한솔시민의회